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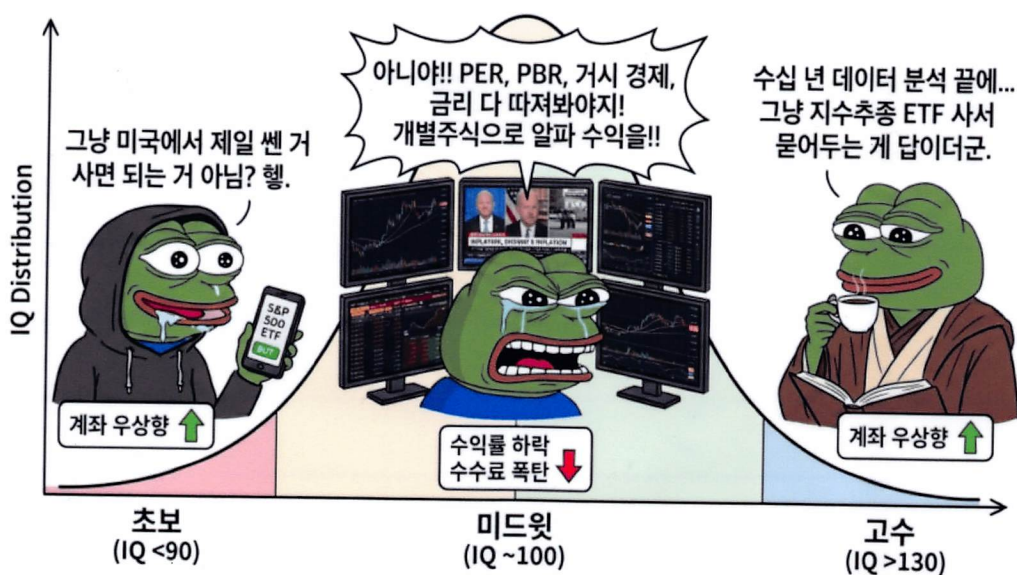
2026 이. 07. 11:57

오늘은 당직입니다.

요즘 이상하게 오전에 졸립습니다. 그래도 운전을 할 때는 괜찮은데  
직장에 도착하면 계속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오늘도 회의 전에  
비몽사몽 하다가 오전 회의내내 졸았습니다. 그러곤 제 방에 돌아와서  
다시 잠들었습니다.

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평소 수면시간이 부족해서  
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가 잠은 일찍 청해도 새벽에  
반드시 깨기 때문에 실제 수면시간은 하루 네 시간에 불과하  
더군요. 그러다보니 수면이 부족해 졸린 것 같습니다.  
아무튼 요즘 일이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나중에 바빠지면 조금  
곤란할 것 같기는 합니다.

요즘 투자에 대해 조금 지친 것인지 흥미를 잃은 것인지 잘 모르겠  
습니다.



저야 어차피 위렌버핏으로 이어지는 가치투자자에 가까워 위



그림의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요즘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잘 모를 때에는 생각해도 지치니 그냥 VOO를 사고 싶어집니다.

그런데 우스운 것은 요즘 VOO가 너무 올라서 이것 한 주 사는 것이 다른 개별주 사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입니다. 주당 단가가 \$650을 넘기니 돈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. 독하면 돈이 모자라거나 남으니까요. 아무튼 올해 도저히 개별투자로 S&P500 상승률을 못 따라갈 것 같거나 투자 자체가 피곤하면 VOO를 살 생각입니다. 워렌 버핏도 "그냥 VOO나 사라"고 했으니깐요.

아무튼 지금은 모든 것이 정체가입니다. 아마추어 무선도 뭔가 나태해 졌고, 주식도 확실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무엇인가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의 성과를 따져보고 스스로에게 심리적 포상을 주는 무엇인가 말

